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3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서… 시 · 시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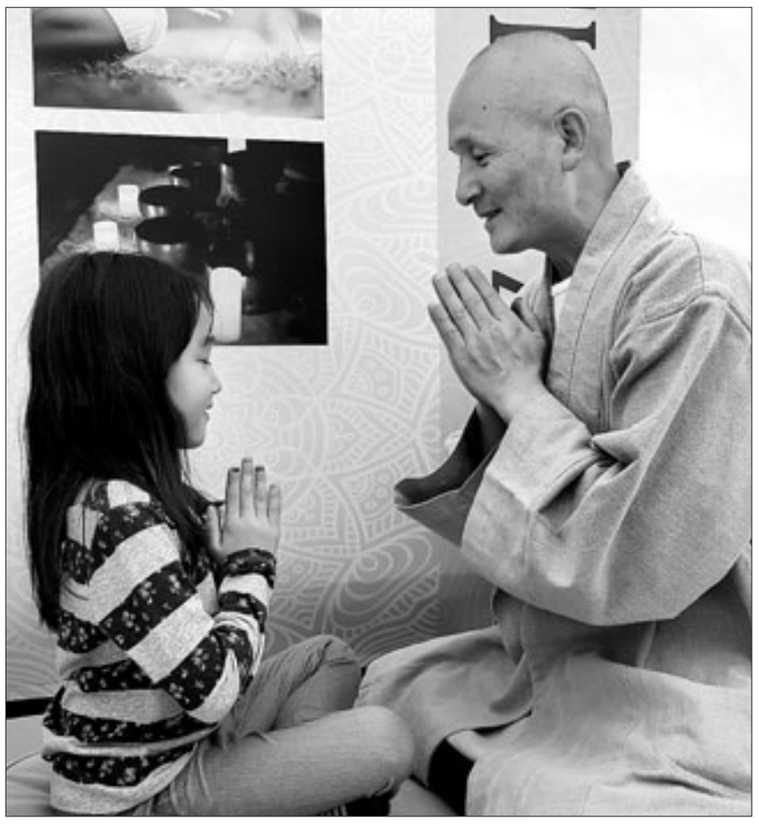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사랑 정신과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력을 되새겨보고자 열리는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8월 13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서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2017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며, 강원도 · 인제군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이 주최하고 인제신문사가 주관한다. 시와 시조 부문으로 나뉘며, 시제는 당일 현장서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시와 시조 부문을 통틀어 시상했으나 올해는 분리 시상한다.

시 부문은 △장원 1명(강원도지사상) 상금 150만원 △차상 1명(인제군수상) 상금 100만원 △차사 1명(인제군의회 의장상) 상금 50만원 △장려 5명(인제신문사 발행인상)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시조 부문도 시상 내역은 동일하다.

나이 · 성별 ·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인제신문 홈페이지(www.okinjenews.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1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injenews@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 참가비 무료. (033)461-1588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스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유아들의 심리 · 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축제서 불교명상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7월 27~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열린 영유아박람회 '키더페어'에 참여, 유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명상 등을 소개했다. 사진은 27일 봉인사 적경 스님이 부스를 찾아온 한 아이에게 명상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명상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봉인사 한길정진원

책에서 느낀 화쟁, 글로 풀어보자

화쟁委,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

독서를 통한 화쟁사상의 사회 확산을 도모하는 독후감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쟁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는 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일반부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선정된 책 3권 중 1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도서는 초등부 △강아지똥(권정생) △똥장군하고 놀면 안돼요?(원유순) △무기 팔지 마세요!(위기철), 중고등부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 진짜 부자들(이향안)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장성익) △쉽게 읽는 백범일지(김구), 일반부 △담론(신영복) △대담(도정일 · 최재천) △비폭력 대화(마셜 B. 로젠버그)다. 수상작은 11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 등 총상금 약 2000만원이 수여된다. 윤호섭 기자

"출가자의 삶, 人天의 스승 그 위대한 길"

해인사, 8월 3일 방장 원각 스님 금산식 봉행

출가자 감소 현실을 극복하고
불퇴전의 고귀한 발심 되새겨
출가 25 · 60년 축하법회 계획
단기출가로 출가자 양성 추진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왼쪽)이 방장 원각 스님에게 대가사를 봉정하고 있다.

승가 대중들이 대가사, 주장자, 금강저 그리고 경전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에게 봉정했다. 출가의 삶,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경외이자 물러섬 없는 불퇴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3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출가 50주년 금산식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식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해 선원 및 율원 등 사중 스님과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강석진 국회의원, 하창완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해인사 대중은 방장 스님의 금산식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출가자의 고귀한 발심을 기렸다. 아울러 한평생 불퇴전의 정진으로 스승이 되어준 스님들을 높이 받드는 불가 전통을 되살렸다. 특히 출가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의 본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사로 개최됐다.

법회는 방장 원각 스님의 헌화로 시작해 주지 향적 스님이 봉행사로 개최 취지를 전했다. 또한 금산식 참여 대중은 이어 대가사와 주장자, 금강저, 경전을 봉정하며 원각 스님의 출가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원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심수만경전(心隨萬境轉) 전처실능유(轉處悉能幽) 수류인득성(隨流認得性) 무희역무우(無喜亦無憂)다"며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다니나 그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깊고 깊다. 흐름을 따르더라도 본 성품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50년 전 출가했을 당시 방은 비좁고 대중이 많아 불편함도 있었지만 새벽에 자다 깨면 곳곳에 용맹정진하는 도반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그 삶이 바탕이 되어 변함없는 본래 성품을 오늘 이야기한다"며 "흐름을 따르더라도 그 본래 성품을 알면 불고불락의 경계에 이른다"고 대중들에게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주지 향적 스님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방장 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자신만을 위한 축하행사라 극구 반대하셨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가자가 없어 승가 공동체 위기를 맞은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를 독려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현재 법랍 50년을 맞으면 성대히 축하행사를 한다. 한국불교도 법랍 60년이 되면 혜남이라 해 축하법회를 했다. 전통을 잇고 출가 발심의 위대함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방장 스님의 입산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런 희유한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납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스승으로 큰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해인사는 앞으로 출가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가을 출가 25년, 60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단기 출자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출가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각 스님은 194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66년 해인사 중봉암에서 출가해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다. 수계 후에는 성철, 전강, 경봉, 구산 스님 아래서 공부했으며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에서 수행 정진했다. 거창 고견사 주지, 원당암 감원 소임, 달마선원 선원장, 해인사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2015년 3월 해인총림 9대 방장으로 추대됐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미등록 법인 사찰, 가등록 길 열려

조계종, 법인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권리제한 면제

조계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 법인 소속 사찰들이 권리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지난 제208회 중앙종회서 가결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9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31일 가등록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정된 법령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중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등록 절차는 사찰법 및 사찰법시행령의 사찰 예비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가등록 사찰의 교구는 직할교구로 지정된다. 특히 가등록 사찰의 관리인은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인증여 가등기나 유언공증, 합유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등록 신청은 신청서 및 사찰관리인 품신 서류를 총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가등록 결정 여부가 통지되며, 3개월 내에 조계종 명의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가등록 신청과 동시에 사찰관리인을 품신하고, 법인소유 재산을 포함한 해당사찰 재산 모두를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한다.

사찰관리인 품신 시 자격은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하지만 말사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다만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시 당시 날짜를 연월일 모두 기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02)2011-1701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토론 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까

조계종 교육원, 9월 7~8일 교수 연찬회

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찰 승가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연찬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9월 7~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교육 현장을 위해'를 주제로 사찰 승가대학 교수

'질문 · 토론' 주제 교육
대립 · 원탁토론 등 실습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사찰승가대학에서 질문과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찬회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연찬회 첫 날에는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가 철학적 사고를 일깨우는 발문과 화두법을 시작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식 토론과 소크라틱 세미나, 하브루타를 비롯해서 사고력을 기르는 고전식 토론과 세타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등의 대립토론, 창조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원탁토론,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노란 테이블 토론, 승가대학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수법에 대한 자유토론 등을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한다. 2일차에는 강영미 한미 메디칼 매너 서비스센터 원장이 경청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교수법을 강의하고 실습을 한다.

교육원은 "이번 연찬회는 승가대학 전 수업이 토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찰승가대학의 상주 교수스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토대로 승가교육이 경전이나 선어록 등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승가교육의 전통을 확산하고, 전법포교 현장에서도 살아 숨쉬는 설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이기봉 스님	월	오후 1시 ~ 7시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현성 스님	수	오후 1시 ~ 7시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최원허 스님	목	오후 1시 ~ 7시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조인각 스님	금	오후 1시 ~ 7시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심만춘 스님	화	오후 1시 ~ 4시	*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8월 14일 ~ 8월 25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